

상실 그 후... 남겨진 자들의 슬픔

‘메스를 드는 시간’

박성천 지음

인간은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가족에 집착하고,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개인이란 늘 ‘고독한 군중’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표면적으로 사람들간 소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익명성의 탈을 쓴 외로움의 벽만 더욱 높게 쌓여 갈 뿐이다.

소설가 박성천은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을 통해 소름 부재가 낳은 인간의 비극과 고독을 보여준다.

책에 담긴 8편의 소설에는 새벽 감을 감싼 물안개처럼 축축하게 부유하는 슬픔이 관통하고 있다. 소설 속 불안정한 인간의 모습은 장애, 상실, 고독, 결핍, 사고 등의 원인으로 시작됐다.

표제작 ‘메스를 드는 시간’에는 실형을 취해 해부하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녀는 여를 내내 자살 충동과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녀가 견뎌야 하는 슬픔의 높음은 깊지만 하지만 문제와 이야기 전달 방식은 의외로 답답하다. 때론, 울적 소리 내 울음을 터뜨리는 것보다 소리가 흘러내리는 눈물이 더욱 슬퍼 보이듯 저자의 소설 속 인물들은 가만가만 슬픔을 견디고 있다.

또 낯선 해부학 용어와 약품, 해부 상식 등이 등장하면서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심리에 때를



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정의 거리’도 확보했다. 답답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은 다른 소설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단추, 블랙 앤 화이트’에선 할아버지의 죽음을 후 홀로 살아가는 남자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여자가 등장한다. 둘의 상실감이 닮았지만 드러내 놓고 서로 위로하지는 않는다. 다만, 서로의 상처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확인할 뿐이다.

또 다른 작품 ‘무지기의 새’에서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자살과 정신지체아였던 형의 원인을 죽음을 견뎌야 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주인공에게 고향은 잊고 싶은 아픔의 현상이지만, 스스로 고향을 찾아가면서 화해와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된다. 주인공이 15년 만에 귀향해 느낀 감정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상처였다. 주인공은 그 상처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치유의 가능성도 엿보게 된다.

이 밖에 ‘그녀의 집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가 등장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팅 빈 집’을 통해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행복의 공간이었던 집은 죽음이 불어닥친 후 슬픔과 절망의 감옥으로 변해버린다.

남자 주인공은 여자의 집에서 “은밀하면서도 외로운 법새가 난다”며 끝없는 슬픔과 절망을 읽어낸다. 남자는 생전 연인의 사진을 보며 슬픔을 달래고, 여자는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다. <문학들>1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소설가 박성천의 신간 ‘메스를 드는 시간’은 소름 부재가 낳은 인간의 다양한 외로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녀를 사랑한 세자빈...조선 유일 왕실 동성애

‘채홍’
김별아 지음



다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자기 욕망에 솔직한 여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설은 봉빈이 폐빈이 된 이후 친정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해 시점을 넘나들며 펼쳐진다.

세자의 첫째 부인 휘빈 김씨가 폐출된 후 두 번째로 세자빈이 되었던 봉빈은 세자에게 사랑을 갈구하다 좌절하고 궁녀 소생과의 사랑에 빠져든다. 대부분 역사 소설이 남성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김별아의 역사 소설은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저자는 “여성에게는 사랑 자체가 죄가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굴레와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말했다. <해냄>1만38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베스트셀러 ‘미실’의 작가 김별아가 이번에는 조선 시대 유일인 왕실 동성애를 다뤘다. 장편소설 ‘채홍’에 등장하는 조선 세종의 둘째 며느리인 순빈 봉씨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동성애 스캔들의 주인공이다.

문종의 세자 시절 두 번째 부인인 순빈 봉씨는 세자의 무관심을 견디지 못하고, 궁녀와 동침했다가 세종에 발각돼 폐빈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유교 중심의 조선에서, 그것도 여성의 동성애는 당시로서는 발칙함 이상이였다.

봉씨는 소설가 김별아가 만나 ‘봉빈’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소설로 되살아났다.

김씨는 “조선왕조실록에는 순빈 봉씨가 패륜적인 음란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묘사돼 있지만, 행간을 읽

소설·희곡·에세이...쿤데라 문학 총망라

‘밀란쿤데라 전집’

밀란 쿤데라 지음



‘농담’은 작품 속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했다. 이는 이유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작가 밀란 쿤데라(82)의 대표작을 망라한 전집이 출간된다. 1929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난 그는 ‘프라하의 봄’에 참여했다가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프랑스로 거취를 옮겨 집필 활동을 멈추지 않은 작가다.

밀란 쿤데라 전집은 장편소설과 단편집, 에세이, 희곡 등 쿤데라 문학의 전 면모를 엿볼 수 있는 15권의 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출간된 1차분은 ‘농담’ ‘삶은 다른 곳에’ ‘웃음과 망각의 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별벌’ 등 그의 장편소설 다섯 편이다.

집필 금지 처분을 받게 한 소설이다. 일곱 편의 이야기로 이뤄진 1978년작 ‘웃음과 망각의 책’에는 격동의 역사에 휘말린 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앞으로 전집은 출수 달마다 한 권씩 추가로 출간돼 2013년 7월경 전체 15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민음사>각권 1만6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통령의 자격’

윤여준 지음



안철수의 멘토로 주목을 받았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낸 ‘대통령의 자격’을 냈다.

윤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은 국민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문제점을 드러내 국민적 저항을 자주 초래했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 공공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또 역대 대통령의 국가운영능력에

도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용인술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보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발전의 업적이 있지만, 유신체제로 민주주의 헌법 정신에서 이탈했다고 비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해체와 금융실명제 도입이라는 업적이 있지만 ‘여론에 민감한 과시형 리더십’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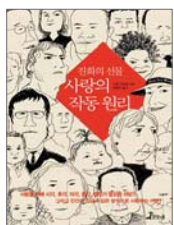
<메디치>2만18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간이 사랑하게 된 이유

‘진화의 선물, 사랑의 작동 원리’

사론 모알렘 지음



미국의 의사이자 생물학자인 사론 모알렘의 ‘진화의 선물, 사랑의 작동 원리’는 인간이 사랑하게 된 이유를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풀어낸다.

저자는 인간의 성적 끌림이 “생물학적 기술 공학의 산물”이라고 단정한다. 또 상대방의 정치관 같은 기준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식을 건강하게 낳아 기를 수 있을까” 같은 철저한 생존 법칙에 따른다고 주장한다.

책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섹스는 비용이 많이 드는 행위라고 소개한다.

파트너를 찾고, 원하는 파트너를 차지하려 경쟁하고,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두고, 직접 섹스를 하느라 사용하는

에너지를 고려해볼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든다는 것이다.

저자는 “수많은 성적 욕망의 배후에는 자신에게 잘 맞는 짝을 찾아 번식을 하려는 진화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며 “진화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즐기자”고 말한다.

<상상의 숲>1만4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싶은 인간의 욕망

‘앨빈 토플러와 작별하라’

댄 가드너 지음



“석유를 계속 소비하다보면 1980년대 말에는 모든 석유가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2002년과 2012년 사이에 소련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21세기 초가 되면 일본과 유럽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이다”

몽상가들이 한 말이 아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노벨 경제학상·평화상 수상자와 세계적인 미래학자 등이 예측한 말이다.

칼립니스트 댄 가드너의 ‘앨빈 토플러와 작별하라’는 이처럼 우리가 석화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빛나던 미래 예측을 소개한다.

저자는 인간의 뇌가 실수를 연발하기 마련이며, 이

때문에 복잡한 세상 일을 예측하는 건 번번이 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인간은 불확실성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엉터리 예측이 쉽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들의 예측 실패 사례를 보면 전문가라는 권위 뒤에 감추어진 그들의 실체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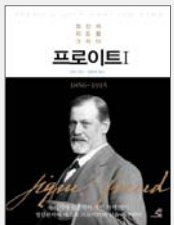
하지만 단순히 미래학자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알고자 발버둥치는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 위에 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 하려는 목적이 더욱 크다.

<생각연구소>1만7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간

▲프로이트 II =역사학자 피터 게이가 쓴 정신분석의 개척자 프로이트 관전. 프로이트는 파란만장한 길을 걸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결혼도 미룬 채의 사로 돈벌이에 나서야 했고 아들처럼 믿었던 후계자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했다. 저자는 프로이트의 논문과 저서, 편지를 살살이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찾아가 인터뷰하는 등 발로 뛰며 이 평전을 썼다. <교양인>각권 3만원



▲미안해요 베트남=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불관한 역사를 소개한다. 저자는 다른 일행 3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16일 동안 북베트남 수도였던 하노이에서 남베트남 수도였던 사이공(지금의 호찌민)까지 장장 1798km를 종주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이 주둔했던 곳마다 참혹한 민간인 학살이 뒤따랐음을 확인하고 전술한다. <푸른역사>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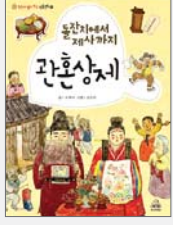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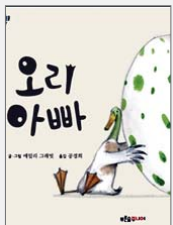
▲우월한 유전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 생물학자 아론 지브가 ‘혈액이 순혈보다 강하고 아름답다’며 과학적 이론을 소개한 책. 스티브 잡스, 버락 오바마, 타이거 우즈의 공통점은 혼혈인이라는 점이다.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에 관여하는 유전자들로 구성된 주조직적합성 복합체(MHC)가 있는데, 부모의 유전자가 다르면 다를수록 자손에게 생기는 유전자가 풍부해진다는 것이다. <예담>1만4000원



▲청춘은 맨발이다=영화배우 신성일이 연극배우와 아나운서로 활동하기도 했던 고(故) 김영애(1944-1985년) 씨와의 가슴 아팠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 책을 통해 신씨는 1970년 처음 만난 뒤 김영애씨가 거주하던 미국과 그가 해외 영화제에 참석했을 때 외국에서 주로 만났다. 또 김영애 씨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 낙태한 사연도 털어놓았다. <문학세계사>1만5000원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이 정치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명진 스님은 “대통령의 말, 서훈처리 동전만도 못하다” “불염치, 파렴치, 후안무치의 삼치가 MB정신”이라는 등 노골적인 용어를 동원해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무너진 법치 무너진 민생’ ‘국정문란 국가문란’ 등의 글을 통해서도 비판을 계속한다. <말글빛남>1만5000원

▲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의 최고 권력자이었던 조선국왕의 일상을 꼼꼼하게 복원했다. 왕은 새벽부터 밤까지 몹시 바쁜 사람이었다. 왕은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또 이렇게 시작된 왕의 하루는 공식적으로 밤이 되어야 끝났다. <돌베개>2만8000원



▲우리 아빠=수컷이니 알을 낳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늘 알을 낳고 싶어 하는 오리 아저씨. 어느날 커다란 초록색 점박이 알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알이라고 믿고 먹고 예지중 지하며 품에 안고 지내고, 사람의 편견을 깨트리듯 아기가 태어난다. 케이트 그리너웨이 수상 작가인 에밀리 그레비티 쓰고 그린 그림책이다. <푸른숲 주니어>1만원

▲우리를 먹지 마세요!=어린이들에게 육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책. 공장식 축산 농장의 동물이나 반려동물이 똑같이 동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채식은 또 하나의 생활방식이라고 소개한다. 공장식 축산 농장의 실태 등을 상세하게 비판하고 있다. <두레아이들>1만2000원

▲관혼상제=돌잔치에서 제사까지 사람이 일상동안 겪는 의식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어른이 되는 관례, 결혼식을 치르는 혼례, 장례를 치르는 상례, 제사 지내는 제례 각 주제별 펼친 정보들을 모아 책 속 부록으로 재구성한 ‘한눈에 펼쳐 보는 전통문화’를 파악하여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주니어 랜덤>8800원

▲배아기 엄마=서정적인 소묘와 의미있는 이야기가 곁들여진 그림책. ‘니양’이라는 악명 높은 고양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배가 점점 불러온다.

▲나리의 집=몽골에서 태어난 작가가 들려주는 몽골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주인공 질투가 태어나 자라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집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광활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몽골 사람들의 삶을 들려준다. 일본의 제14회 노마국제 그림책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빼어난 그림이 돋보이는 책. <보리>1만1000원

어린이 책꽂이